

2004년 기업의 경영성적표

김 정 우*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6일,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경영진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우리나라 법인가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농업, 수도사업, 금융보험업,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산업의 연간매출액이 25억 이상인 5,4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조사항목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로 해당년도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및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다.

2004년도의 기업경영분석의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고수익이 실현되고 성장이 증가하는 등 기업경영의 성과가 향상되었지만 기업규모 및 수출-내수 기업 사이의 양극화 현상 또한 뚜렷이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I. 재무구조 개선, 고수익 실현 및 성장 증가

2004년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었다 (표 1 참조). 2004년 말 기준 전산업의 기업재무구조는 부채비율¹⁾과 차입금의존도²⁾가 각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kjw@kli.re.kr).

- 1)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 재무구조 관련지표이다. (부채/자기자본)×100.
- 2)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차입금+회사채)/총자본×100.

각 131.3%에서 114.0%, 29.1%에서 25.6%로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³⁾이 43.2%에서 46.7%로 높아지는 등 비교적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2004년의 재무구조 관련지표는 일본, 미국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업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기업재무구조 건전화에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꾸준히 차입금을 상환하여 부채규모가 감소한 데다가 수익성의 개선으로 잉여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시기에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재무구조 관련지표들은 이후 줄곧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표 1〉 1997년 이후 재무구조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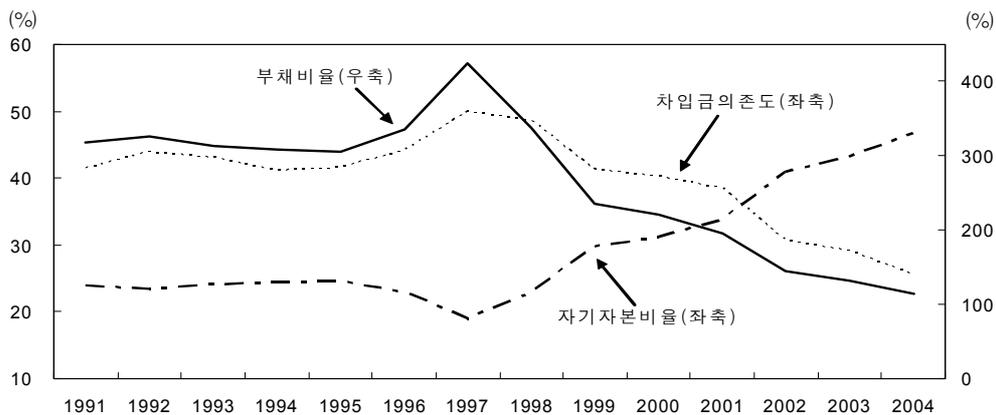
(단위: %)

	1997년말	1998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일본 (2004. 3)	미국 (2004년말)
부채비율	424.6 (396.3)	336.4 (303.0)	221.1 (210.6)	195.6 (182.2)	144.7 (135.4)	131.3 (123.4)	114.0 (104.2)	253.6 (145.4)	- (141.2)
차입금의존도	50.0 (54.2)	48.5 (50.8)	40.3 (41.2)	38.4 (39.8)	30.6 (31.7)	29.1 (28.3)	25.6 (24.0)	39.3 (28.7)	- (22.9)
자기자본비율	19.1 (20.2)	22.9 (24.8)	31.1 (32.2)	33.8 (35.4)	40.9 (42.5)	43.2 (44.8)	46.7 (49.0)	28.3 (40.7)	- (41.6)

주: ()안은 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그림 1〉 1990년대 이후 재무구조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3)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는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본/총자산)×100.

2004년의 수익성 역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대표적 수익성 측정지표인 매출액 경상이익률⁴⁾이 4.8%에서 7.0%로 상승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⁵⁾(6.4%→6.8%), 이자보상비율⁶⁾(351.2%→483.4%)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하였다(표 2 참조). 이는 수출호조 등에 힘입은 영업이익의 증가와 금리 및 원화환율 하락 등에 따른 영업외수지의 흑자전환에 기인한다. 특히 이러한 수익성의 개선추세는 2001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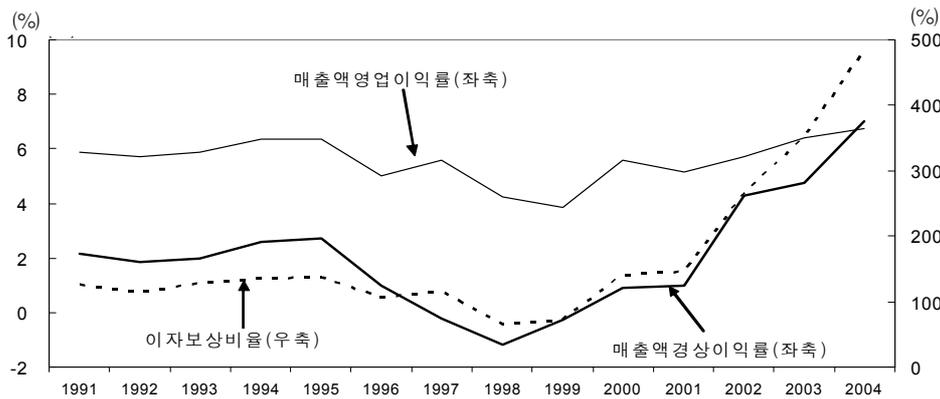
〈표 2〉 1997년 이후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단위: %)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본 (2003)	미국 (2004)
매출액경상이익률	-0.2 (-0.3)	-1.2 (-1.8)	0.9 (1.3)	1.0 (0.4)	4.3 (4.7)	4.8 (4.7)	7.0 (7.8)	2.7 (3.9)	- (9.0)
매출액영업이익률	5.6 (8.3)	4.2 (6.1)	5.6 (7.4)	5.1 (5.5)	5.7 (6.7)	6.4 (6.9)	6.8 (7.6)	2.8 (3.9)	- (6.6)
이자보상비율	115.0 (129.1)	61.3 (68.3)	140.8 (157.2)	146.1 (132.6)	263.5 (260.3)	351.2 (367.1)	483.4 (575.8)	360.1 (578.2)	- (397.1)

주: ()안은 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그림 2〕 1990년대 이후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 4)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100.
- 5)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 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 6)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

2004년의 매출액증가율⁷⁾은 13.3%로 나타나 전년의 증가율 4.0%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유형자산증가율⁸⁾도 3.8% 증가하여 2003년(1.3%)보다 투자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었다(표 3 및 그림 3 참조). 그러나 이는 1970년대(28.7%), 1980년대(17.9%), 1990년대(16.1%)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들어 기업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의 충격을 경험한 기업들은 주로 투자보다는 부채를 갚는데 치중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 1997년 이후 성장성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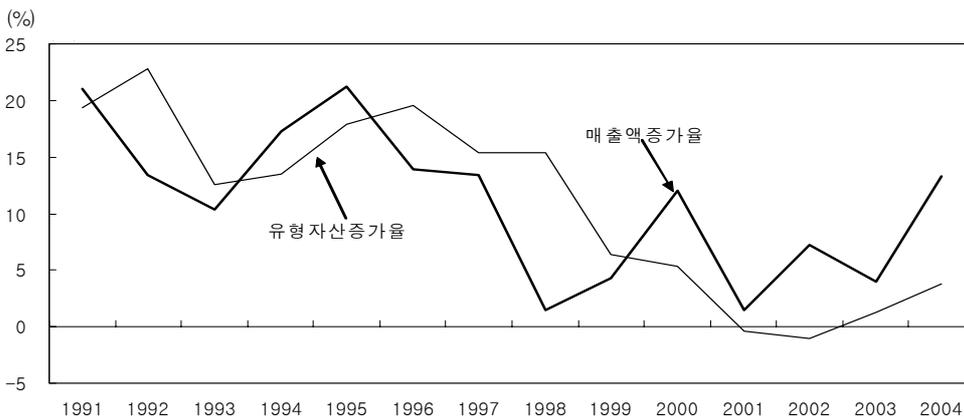
(단위: %)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본 (2003)	미국 (2004)
매출액증가율 ¹⁾	13.4 (11.0)	1.5 (0.7)	12.0 (15.2)	1.5 (1.7)	7.3 (8.3)	4.0 (6.1)	13.3 (17.1)	0.6 (2.0)	- (12.5)
유형자산증가율 ²⁾	15.4 (13.7)	15.4 (17.2)	5.3 (2.4)	-0.4 (-1.5)	-1.0 (-2.2)	1.3 (1.7)	3.8 (4.8)	-2.2 (-2.7)	- (-0.2)

- 주: 1) 전년동기대비.
- 2) 전기말대비.
- 3) ()안은 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그림 3〕 1990년대 이후 성장성 관련 주요지표의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 7)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 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성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된다. 매출액증가율=(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 8)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당해 연도에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유형자산증가율=(당기말 유형자산/전기말 유형자산)×100-100.

II. 기업간 양극화 심화 - 제조업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4년의 기업경영 지표들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수익성, 성장성 측면에서 모두 전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지표의 개선정도는 기업규모, 업종, 수출 혹은 내수지향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재무구조 관련지표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지만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재무구조 개선의 정도가 더 컸다(표 4 참조).

〈표 4〉 기업규모 및 수출비중별 재무구조 관련 주요지표

(단위 : %, %p)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2003년말 (A)	2004년말 (B)	B-A (%p)	2003년말 (A)	2004년말 (B)	B-A (%p)	2003년말 (A)	2004년말 (B)	B-A (%p)
제조업	123.4	104.2	-19.2	28.3	24.0	-4.3	44.8	49.0	4.2
<기업규모별>									
대기업	113.5	91.7	-21.8	25.9	20.4	-5.5	46.8	52.2	5.4
중소기업	147.6	138.7	-8.9	33.5	31.9	-1.6	40.4	41.9	1.5
매출액 500억원 이상	125.5	112.8	-12.7	27.9	25.5	-2.4	44.3	47.0	2.7
매출액 500억원 미만	157.7	152.6	-5.1	35.7	34.8	-0.9	38.8	39.6	0.8
<수출비중별>									
50% 이상 기업	115.3	95.1	-20.2	24.5	19.1	-5.4	46.4	51.3	4.9
20~50% 기업	121.3	101.0	-20.3	32.3	27.0	-5.3	45.2	49.8	4.6
20% 미만 기업	136.0	122.7	-13.3	30.3	29.2	-1.1	42.4	44.9	2.5

주: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업체임.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수익성 지표의 경우, 양극화 정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선, 제조업 대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대폭 상승한 반면(6.0%→10.2%), 중소기업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2.5%→3.3%).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높아졌지만(8.2%→9.4%) 중소기업은 오히려 낮아졌다(4.6%→4.1%). 대기업 중에서도 기업규모가 클수록(30대 이외 기업→30대 기업→5대 기업) 매출액경상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크기 및 전년과의 격차가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경상이익률은 0.1%p 상승에 그쳤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9%p 하락했다.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크기 및 전년과의 격차가 수출비중 20% 미만인 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즉 2004년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그리고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표 5〉 기업규모 및 수출비중별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

(단위 : %, %p)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2003 (A)	2004 (B)	B-A (%p)	2003 (A)	2004 (B)	B-A (%p)
제 조 업	4.7	7.8	3.1	6.9	7.6	0.7
<기업규모별>						
대 기 업	6.0	10.2	4.2	8.2	9.4	1.2
5대 기업	10.9	17.0	6.1	12.2	14.9	2.7
30대 기업	7.7	13.5	5.8	9.5	11.8	2.3
30대 이외 기업	3.8	5.7	1.9	6.4	6.1	-0.3
중 소 기 업	2.5	3.3	0.8	4.6	4.1	-0.5
매출액 500억원 이상	3.9	5.8	1.9	6.1	6.1	0.0
매출액 500억원 미만	1.9	2.0	0.1	4.0	3.1	-0.9
<수출비중별>						
50% 이상 기업	4.9	9.3	4.4	7.0	8.2	1.2
20~50% 기업	4.5	8.9	4.4	7.0	8.7	1.7
20% 미만 기업	4.6	4.7	0.1	6.6	5.7	-0.9

주 :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업체임.

자료 :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기업의 성장추세를 대표하는 매출액증가율을 살펴보면, 2004년의 제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17.1%로 크게 높아졌으나 마찬가지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액증가율도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매출액증가율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액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수출에 기반한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기업규모 및 수출비중별 매출액증가율

(단위: %, %p)

	2003(A)	2004(B)	B-A(%p)
제 조 업	6.1	17.1	11.0
<기업규모별>			
대 기 업	6.6	19.9	13.3
30대 기업	10.2	24.7	14.5
30대 이외 기업	2.3	13.7	11.4
중 소 기 업	5.4	12.3	6.9
매출액 500억원 이상	10.9	22.3	11.4
매출액 500억원 미만	3.2	7.9	4.7
(매출액 100억원 미만)	(-5.3)	(-0.3)	(5.0)
<수출비중별>			
50% 이상 기업	8.6	19.8	11.2
20~50% 기업	7.1	22.0	14.9
20% 미만 기업	2.5	10.1	7.6

주: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업체임.

자료: 한국은행,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보도자료, 2005. 5.

Ⅲ 기업수익의 투자유인 필요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교적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였고, 재무구조도 건실해졌다. 그러나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수익성과 성장성의 크기도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규모가 작고 내수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기업규모 및 수출비중에 따른 경제 양극화가 구조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제성과의 규모별 양극화가 그대로 해당기업 피고용자들에게 전가되었을 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적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증가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반면,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실현된 수익을 새롭게 투자하기보다는 주로 기존의 부채를 갚는데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물론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개선 및

글로벌 시대의 기업생존과도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서 투자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투자 없는 기업에서 고용의 증가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업수익이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호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